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09.12. 23(수) / 총 2 배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• 과 장 김수상, 사무관 차상현 • ☎(02)2110-8242, sanghun@mltm.go.kr
보 도 일 시	2009년 12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대한주택보증주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건설시장 안정에 기여

'09년 1.6조원 등 총 2조원 유동성 공급

- 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대한주택보증(주)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- 정부는 주택수요 위축 및 건설부문 자금경색 심화에 따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('08.10)을 발표·추진하였고,
- 이에 대한주택보증(주)는 『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』을 운영하여 '09년말 현재 1만3천세대의 미분양주택을 매입, 2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였다.

< 미분양주택 매입 현황 >

구분	시기	업체수(개)	사업장수(개)	매입세대(세대)	매입금액(억원)
1차	08.11~12	20	25	3,390	4,173
2차	09. 1~ 3	23	24	4,335	6,277
3차	09. 4~ 7	10	11	2,503	4,391
4차	09. 9~12	11	16	3,184	5,375
계		64	76	13,412	20,216

-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받은 건설사들은 이후 이중 3,400세대(4천억원)를 다시 대한주택보증(주)로부터 환매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러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등으로 금융위기와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방지되고, 그 결과 보증사고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< 보증사고 발생 현황 >

구분	'08년 하반기	'09년 상반기	증감
사고업체수	26	14	△46%
사고사업장수	39	17	△56%
사고세대수	1만9천세대	8천세대	△58%
사고금액	3조원	1조6천억원	△47%

* 분양보증 및 조합주택시공보증 사고현황임

-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은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건설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대한주택보증(주)가 보증하고 있던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(주)의 재무상황을 호전시키는 효과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내년에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